

1990년대 베스트셀러에 나타난 세계화와 민족주의

—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중심으로*

안 혜 연**

요약

이 글은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1993, 이하 『무궁화』)를 중심으로 1990년대 베스트셀러에 나타난 민족주의 담론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무궁화』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밀리언셀러로 강한 반일, 반미 의식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로 인해 그간 통속적인 민족주의 소설로 치부되며 학문적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그러나 『무궁화』의 민족주의는 세계화라는 전지구적 체제 변화 속에서 민족담론이 진보에서 보수로 치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 글에서는 세계화가 민족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 아래 김영삼의 ‘역사 바로세우기’ 정책들과 세계화의 관계를 분석하고, 『무궁화』와 유사 소재를 다룬 이명행의 『황색색의 발톱』에 나타난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살폈다. 이 소설은 탈냉전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낀 하위 제국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영웅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반면 김진명의 『무궁화』는 ‘엘리트 남성성’을 새로운 이상적 남성성으로 제시하고 정치와 민족을 남성으로 표상하며, 1인 남성 영웅을 제시하고 있음을 살폈다. 뒤 이어 김영삼 정권이 세계화를 국가 간 ‘무한경쟁’으로 정의하고 세계화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이 『무궁화』에서 강한 권력의 의지인 ‘핵’으로 표상되고, 이러한 태도가 박정희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특히 혈통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한국의 이익과 미래를 위한 통일을 상상하는 태도가 이후 등

* 이 논문은 2023년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박사 후 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장할 '대한민국 민족주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주제어: 김진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990년대, 베스트셀러, 이명행, 음모론, 대한민국 민족주의, 반일, 반미, 박정희 신드롬

목차

1. 들어가며: '세계화'와 민족주의
2. 거대한 '적'의 등장과 보이지 않는 위협
3. '엘리트 남성성'과 사라진 여성들
4. 박정희의 유령과 음모론의 시대
5.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등장과 그 이후

1. 들어가며 : 세계화와 민족주의

이 글은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1993)를 중심으로 1990년대 베스트셀러에 나타난 민족주의 담론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변화 속에서 이 시기 민족주의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가 출현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김진명은 1990년대 '문화권력'으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누린 작가이다. 그의 소설들은 "상품화되는 즉시 흥행을 보장"했고, 일단 새 작품이 출간되고 나면 한동안 출판 시장을 쥐었다 놓을만큼 1990년대 출판계에 끼친 영향력이 컸다.¹⁾ 김진명이 1993년 출간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이하, 『무궁화』)가 밀리언셀러에 오른 후 『가즈오의 나라』(1995), 『하늘이여 땅이여』(1996) 등 1990년대 발표한 소설들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시기 김진명의 인기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무궁화』는 중·고

1) 「베스트셀러 작가 김진명 왜 평론가는 외면하나」, 『조선일보』, 1999년 4월 6일 35면.

등학생들이 어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목록에 오르기도 했고,²⁾ 책을 멀리했던 30, 40대 남성 독자들을 출판시장에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소설로 『무궁화』가 언급되기도 한다.³⁾ 뿐만 아니라 그는 『무궁화』와의 인기로 1996년 4월 총선에 국민회의 송파을 후보로 출마하고, 맥주 TV 광고를 찍는 등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김진명을 스타 작가로 만든 『무궁화』는 강한 역사의식을 드러내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른바 ‘국뽕’ 서사이다. 주목할 점은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1993년부터 IMF 직전인 1996년 사이 역사성을 드러내며,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베스트셀러가 비단 『무궁화』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1992년 창비에서 출간된 『소설 동의보감』이 1990년대 첫 밀리언셀러가 된 이후 『소설 목민심서』, 『소설 한중록』, 『영원한 제국』 등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붐이 일었다. 또한 비소설 영역에서도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가 나란히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역사’, ‘애국’, ‘반일’, ‘반미’, ‘민족(주의)’과 같은 키워드들이 베스트셀러의 요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⁴⁾

박해남은 1990년대에는 “1980년대 발전국가의 조바심”이나, “저항적 시민사회가 부르짖었던 반제국주의적인 민족의식과는 다른 양상”의 민족주

2) 「10대들이 어른에게 권하는 책 남중생, 슬램덩크 30% 1위, 남고생은 ‘무궁화꽃...’이 33%」, 『한겨레』, 1994년 7월 28일 11면.; 이 기사에 따르면 남자 중학생 설문 결과 1위 『슬램덩크』(30%), 2위 『먼 나라 이웃 나라』(19.4%), 3위 『무궁화』(10.2%)로 나타났으며, 남고생의 경우 1위 『무궁화』(32.7%), 2위 『소설 이휘소』(10.2%)로 김진명의 『무궁화』가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무궁화』의 주인공 이용후의 모델인 이휘소를 소설화한 작품이 2위에 올랐다.

3) 「30-40대 남성 직장인 새 독서층 급부상」, 『동아일보』, 1994년 2월7일, 11면.; 「성인 독서성향 조사, 소설류 가장 선호 48%」, 『동아일보』, 1996년 4월 29일, 21면.

4) 90년대 베스트셀러 그 중에서도 100만부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는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360만부), 양귀자의 『천년의 사랑』(200만부), 김진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200만부), 김정현의 『아버지』(180만부),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100만부)이다.; 한만수, 「90년대 베스트셀러 소설, 그 세계관과 오락성: 『소설 동의보감』, 『천년의 사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원한 제국』,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192면.

의가 출현했다고 논한다.⁵⁾ 민중이나 노동자를 민족의 주체로 상정하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경제성장과 함께 중산층의 폭이 두터워지고 소비를 통해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는” 대중이 사회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중 사회에서 민족주의는 기존과 같이 민족의 의미를 독점한 엘리트나 소수 집단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적 소비를 통해 생산, 유포된다는 것이다.⁶⁾ 이러한 관점에서 박해남은 1990년대 새롭게 출현한 민족주의를 ‘대중 민족주의’로 정의한다. 그는 IMF 이전인 1990년대 초중반의 ‘대중 민족주의’가 “종족에 대한 강조와 미국과 일본에 대한 타자화 등, 저항적 시민사회가 생산한 민족주의 담론을 소비”하는 ‘저항적 민족주의’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한다.⁷⁾ 박해남의 연구는 이전 시기의 민족주의와는 다른 1990년대 민족주의의 특징을 논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1990년대는 분명 ‘대중 사회’, ‘시민 사회’라 부를 수 있다. 김동춘은 해방 이후 남북이 모두 정치적 수단으로 민족주의를 이용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주의의 원칙 아래 민족주의가 억제되어 왔음을 논의한다. 분단국가는 기본적으로 냉전적 세계체제의 산물이지만 냉전 종식과 무관하게 자체의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⁸⁾ 이제 경제력으로 북한을 압도한 남한은 민족 통일보다는 국가질서의 유지에 더 집중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까지 민족의 과제로 통일을 상정하던 민족주의의 흐름과는 상이한 지점이 있다. 식민지 시기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출발한 한국의 민족주의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담론이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족은 역사의 퇴물, 시대와 맞지 않는 낡은 구호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⁹⁾ 이러한 흐름은

5) 박해남, 「1990년대의 국제화, 세계화와 대중 민족주의」,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4면.

6) 박해남, 앞의 논문, 8면.

7) 박해남, 앞의 논문, 25면.

8) 김동춘, 「국제화와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비평』 29, 역사비평사, 1994, 49-50면.

1990년대 시민단체 또는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맞물려 나타난다. 본고는 1990년대 초반 새로운 민족주의가 출현했다는 박해남의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아 민족주의 담론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한국사회의 주체가 민중(노동자)에서 시민(대중)으로 바뀌었으며, 냉전 종식과 함께 도래한 세계화의 흐름이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를 만들어 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진명의 『무궁화』는 출간 당시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대중적 인기를 끌었지만, 이러한 민족주의 서사의 유행에 대해 당시 문학기계나 비평계는 우려를 표한다. 진중권은 『무궁화』에 나타난 민족주의를 “대립적 민족주의”로 정의한다. “이웃 나라를 천적으로 설정해 놓고 증오하는 국수주의의 일종”이라는 것이다.¹⁰⁾ 이와 유사하게 당대 평론가들은 『무궁화』의 흥행에 대해 민족주의가 상업주의적 대중소설의 소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하면서, 『무궁화』의 민족주의를 “민족자존의 패러노이아(편집증)”¹¹⁾, “자주 국방이라는 선정적인 구호”¹²⁾,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신경질적인 반일 감정”¹³⁾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무궁화』의 민족주의는 단순히 극우, 보수,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로 치부하기에는 독특한 지점이 있다. 친미, 친일, 반공주의를 토대로 형성된 기존의 한국 극우 민족주의와는 달리 반미, 반일 정서를 앞세우고 있으며, 민족 자주와 남북통일에 대한 지향 또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무궁화』의 복잡 미묘한 민족주의는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체제의 민족 담론과 반제, 통일을 내세운 1980년대 운동권의 민족 담론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무궁화』는 진보 진영의 주

9) 김동춘, 「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시민과 세계』 창간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2, 68면.

10) 진중권,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2, 개마고원, 1998, 154면.

11) 황종연, 「민족을 상상하는 문학—한국소설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학동네』 1(1), 문학동네, 1994, 4면.

12) 서영채, 「음모, 장편소설의 새로운 화두」, 『상상』, 살림출판사, 1993년 겨울호, 20면.

13) 신기욱, 이진욱 옮김,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창비, 2009, 255-266면.

요 담론이었던 민족주의가 보수 우익의 담론으로 전유되기 시작하고, 세계화와 국가 위기, 위기의 극복 방법으로서 남북통일을 논하며 통일을 같은 민족으로서 추구해야할 당연한 과제가 아닌 남한 국가의 이익에 기반한 수단적 통일담론을 보여준다.

본고는 먼저 김진명의 『무궁화』가 등장한 1993년 전후 한국 사회를 살필 것이다. 이 시기는 30여년 만에 등장한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고 냉전종식과 세계화라는 전환점을 맞은 시기이기도 하다. 김영삼 정권의 정치적 수사와 정책이 민족주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무궁화』와 동시기에 출간된 유사한 주제의 소설인 이명행의 『황색 새의 발톱』을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뒤이어 『무궁화』의 원작이라 할 수 있는 1992년 출간된 『플루토늄의 행방』과 『무궁화』를 비교하여 개작본에 새롭게 추가된 에피소드들이 무엇인지 밝히고, 당대 대중들의 관심과 민족주의가 상응하는 지점을 논하고자 한다. 끝으로 『무궁화』에 나타난 민족주의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새롭게 형성된 남한 국가 중심적인 민족주의의 형성과 그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거대한 ‘적’의 등장과 보이지 않는 위협 : 이명행, 『황색 새의 발톱』

한국 사회에서 10년 단위로 연대를 구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990년대’ 또는 ‘1990년대 적인 것’이라는 관형어는 구체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IMF 사태 직전인 1992~96년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1991년 소련의 공식 해체는 사회주의를 유토피아로 여기던 사회운동 세력에 충격을 안겼다. 또한 1991년 5월 대투쟁 실패와 잇따른 학생, 시민들의 분신은 탈(脫) 이데올로기의 바람 속에서 ‘죽음, 상실, 몰락’이라는 환멸과 허무주의적인 태도

를 남기며, 1980년대의 종말을 선언했다. 결정적으로 1980년대적인 것과 결별, 단절하며 1990년대의 시작을 알린 것은 1993년 김영삼의 대통령 취임이었다. 김영삼은 1993년 14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30년 만에 “문민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고, 이와 함께 “세계는 실리에 따라 적과 동지가 뒤바뀌어” “경제 전쟁, 기술 전쟁의 시대”에 들어섰음을 강조한다.¹⁴⁾ 김영삼이 취임한 1993년은 냉전이 종식되고 전 지구적으로 ‘세계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한국 사회는 이념투쟁의 국면에서 ‘세계화’ 시대로 전환을 맞이한다.

김영삼은 세계화를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신이자 운동”으로 설명한다.

새해와 더불어 WTO 체제가 출범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앞날을 개척해야 할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 이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쟁에서 한발 뒤떨어지면,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서는 10년, 100년 뒤떨어질지도 모릅니다.** (...)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화'는 결코 일부만의 것, 모아지지 않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정부와 국민, 중앙과 지방, 사회 각계, 온 국민이 주역이 되는 '참여'의 정신이자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계층과 지역, 정파와 세대를 뛰어넘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하는 '단합'의 정신이자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¹⁵⁾

김영삼의 세계화에 대한 연설에서 계속 강조된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세계화는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결국 살아남지 못한다면 “민족 생존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세계의 압축, 국경

14) 「제 14대 대통령 취임사」, 『김영삼 대통령 연설 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 1993년 2월 25일.

15) 「1995년 신년사 (세계로 미래로 함께 달려갑시다)」, 『김영삼 대통령 연설 문집 제2권』, 대통령비서실, 1995년 1월 1일.

(주권)의 상대화라는 현상적 흐름인 동시에 특정 국가(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¹⁶⁾ 즉 시장 개방과 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단결이 필요하며, 이것이 곧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 김영삼 정권이 추진한 세계화 정책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WTO 출범, OECD 가입 등 한국 시장 개방과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국가의 제 1과제로 설정함으로써 대중을 민족의 이름으로 결집시키고자 했다.

김영삼 정권은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을 잇는 문민정부를 자부했으나 여야 보수세력과의 합당을 통해 탄생하였기에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에 김영삼은 정권 초기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중요한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군부 정권과의 차별과 단절을 꾀한다.¹⁷⁾ 5.16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4.19와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민주적 정통성을 강조하는 정치상징적 행위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¹⁸⁾

현대사에 대한 재해석 외에 김영삼이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적극 추진한 것은 일제 잔재 청산이다. 그는 취임 첫 해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치하고, 독립 운동가를 찾아 포상을 하는 한편,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일제가 민족정기

16) 조성환, 「세계화 시대의 동아시아 민족주의 : 신민족주의의 분출과 동아시아주의적 모색」,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5(1),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168면.

17) 정무용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이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은 과거사 청산과 현대사 재해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적 선택 역시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민자당(신한국당) 내외의 보수(수구) 세력의 반발이 있었고 이는 보수 정치세력의 재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가 중국에는 김영삼 정권의 실정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역사 청산 작업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기에 이른다.; 정무용, 「역사전쟁의 序」, 『중앙사론』 54(1),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21, 225-227면.

18) 박윤희, 장석준,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과정의 상징정치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6(3),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7, 137면.

를 말살하기 위해 주요 산 정상에 박아 두었다는 ‘쇠말뚝 뽑기 사업’, ‘일본식 지명 바꾸기’ 등 일제 잔재 청산 정책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삼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할 만큼 큰 관심을 기울였다. 김영삼은 강력한 의지로 1995년 8월 15일 광복절에 5만 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선총독부 철거 선포식을 거행을 거행하고, 첩탐을 제거하였다.¹⁹⁾ 쇠말뚝 뽑기 사업 역시 증명된 적 없는 이른바 일본 단맥설(斷脈說)을 국가가 나서 인정하며 각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지역에 있는 쇠말뚝을 찾아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그 중 몇몇은 독립기념관에 전시하기도 했다.²⁰⁾

이러한 김영삼 정권의 일제 잔재 청산 정책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계속된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과 맞물리면서 반일 감정의 증폭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정서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이러한 정권의 민족주의적 정책과 나란히 출간된 1993~94년의 베스트셀러는 김진명의 『무궁화』를 비롯해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등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책들이었다.²¹⁾ 이 책들은 세계화로 한국(민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선진국으로서의 한국, 한국(민족)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순된 두 맥락

19) 김경은, 「민주화 이후 핵심행정부의 의사결정: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사례 분석」, 『행정논총』 56(4),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8, 참조

20) 김백영, 「상징공간의 변용과 집합기억의 발명: 서울의 식민지 경험과 민족적 장소성의 재구성」, 『공간과 사회』 28, 한국공간환경학회, 2007, 참조.

21) 「94 베스트셀러, 국일 민족의식 부각된 한 해」, 『조선일보』, 1994년 12월 9일 35면.; 간단히 일별해보면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은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강력한 독재 권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여옥의 『일본은 없다』는 냉전 이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별것 아니”라는 자신감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지식인 남성의 시선으로 민족문화를 재발견함으로써 1990년대 새롭게 등장한 시민/대중을 민족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주체로서 호명한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 베스트셀러에서는 ‘위기감’과 ‘자신감’이 뒤섞인 민족주의적 태도가 드러나는데, 이는 이 시기 대중의 민족주의 감정과 민족주의 서사를 분석하는 기본 틀이 될 것이다.

을 가지고 있다. 이 책들은 1990년대 이후 민족주의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정책은 세계 경제에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함을 강조하며 세계화를 민족주의의 목표로 전유하였다.²²⁾

1990년대 초반 “추리적 혹은 공상과학의 기법을 차용하면서 국제문제나 민족주의에 눈을 돌리는 장편소설”들이 대거 베스트셀러에 오른다.²³⁾ 그 대표 격으로 당시 주목을 받은 소설은 김진명의 『무궁화』와 함께 이명행의 『황색 새의 발톱』(이하 『황색 새』)²⁴⁾이었다. 1993년 거의 동시에 출간된 『무궁화』와 『황색 새』는 공통적으로 반미 반일 정서에 기대며 탈냉전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놓인 한국의 상황을 소재로 취한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궁화』는 밀리언셀러가 되었지만, 『황색 새』는 문단에서는 물론 독자들에게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²⁵⁾

1993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된 『황색 새』는 가상의 국가 기관인 합동정보위원회(JIC)를 배경으로 한다. 전 세계의 정보가 모이는 JIC는 국장 중심의 친미파와 부국장 중심의 친일파 두 세력으로 나뉘어 알력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소설에서 미국은 “남한에서는 민주화를 방해”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핑계로 계속 압박하면서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다. 또 일본은 “이코노믹 애니멀”로 불릴 만큼 국제사회

22) 신기욱, 앞의 책, 310-318면.

23) 「추리기법 민족주의 화두, 90년대 소설의 주류 형성」, 『경향신문』, 1993년 11월 9일 15면.

24) 이명행, 『황색 새의 발톱』, 문학과지성사, 1993. 이후 이 작품에서 인용할 경우 『황색 새』로 표기하고 면수만 병기함.

25) 이명행의 『황색 새』는 북거일의 『비명을 찾아서』에 이어 두 번째로 출간된 비등단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이 책의 첫머리에는 이례적으로 문지 편집 동인들이 작성한 출간사가 실려 있다. 이들은 『황색 새』가 냉전 종식 이후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한 세계체제 속에서 한국이 처한 위기감을 실제의 자료들과 ‘사회과학적 인식’을 통해 치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 소설이 제기한 “우리의 국제 정치적, 국가 경제적 위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황색 새』, 5-6면.

에서 “돈벌이”,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민족이자 ‘임나일본부설’에 이어 일본의 조상들이 대륙에서 왔다는 ‘기마민족 정복설’을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을 통해 신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는 반성 없는 존재들이다.²⁶⁾ 냉전 시기 자유진영의 강력한 동맹관계였던 미국과 일본은 사실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한민족은 그들에 의해 이용당해왔다는 것이다.²⁷⁾

동시에 『황색 새』는 선진국 진입을 앞 둔 하위제국으로서의 한국의 모습을 그린다. 이 소설에는 한국이 유입된 이주노동자가 등장한다. 소설 초반 발생한 테러의 범인으로 체포된 불법 체류자 말레이시아인 모렐은 “끝내 자기 편이 되지 않는 세상에 복수를 하기 위해” 테러를 저질렀다고 진술한다.²⁸⁾ 한국은 1980년대 말부터 중국 교포와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며 “이주노동자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의 전환점”을 맞는다.²⁹⁾ 1990년대 초반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등 인권유린과 노동 착취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시기이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³⁰⁾

26) 『황색 새』, 77면.

27) 소설의 반미와 반일의 근거들은 당시 대중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반미의식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1980년대 운동권의 ‘반제’ 구호 속에서 지속되어 왔다. 또한 탈냉전 이후 시작된 세계의 지역화와 함께 아시아의 국가들 역시 하나의 지역으로 세력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0년대 초반 담론으로서의 동아시아론이 등장한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대륙을 적국을 간주했던 냉전적 사고의 유산, 과거 제국주의 침략국이자 여전히 경제대국인 일본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그리고 무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위기 의식 등”은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보는 데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부추”기는 것이기도 했다.; 윤여일, 「탈냉전기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32면.; 임우경, 「비관적 지역주의로서의 한국 동아시아론의 형성」, 『동아시아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6, 183면. 참조.

28) 『황색 새』, 11면.

29) 양혜우, 「이주노동 없는 공동체를 위한 귀환 이주노동자의 꿈: 네팔 다목적 협동조합 에카타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77, 민족연구소, 2021, 148면.

30) 『황색 새』, 28면.

하고, 앞뒤로 자동차들이 숨이 막힐 만큼 러시아워가 일어나는 대도시 서울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하위제국으로서의 한국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이 소설에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제국 앞에서 언제나 ‘하위’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패배감과 허무함이다. 국장과 부국장은 모두 애국자들이다. 국장은 “때에 절은 와이셔츠를 입고 앉아 마른 빵을 씹어가면서 일본에 의해 희생될 조국 통일을 염려하며 밤을 지새우고” 부국장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희생될 조국을 걱정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며 오늘도 자신만의 전쟁터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의 국제정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는 소설 마지막에 이르면 허무하게 무너진다. 국장은 공금을 횡령하면서까지 미국인 테러 사건을 조사해 그 배후에 일본 우익이 후원하는 ‘황색인 해방연합단’(황련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한 정보를 미국 대사관에 넘기며, 미국이 일본에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린다(미국이 나서면 자신의 공금 횡령도 횡령이 아닌 정보조사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장은 결국 공금횡령 혐의로 경질된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 공식적인 제재를 가하는 대신 일본 정부와 은밀한 거래를 통해 실리를 챙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일본, 누구 편에 서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로지 자본의 논리,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무한전쟁의 시대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선택은 대단히 실리적이지. (...) 그들의 선택을 상식으로 이해하려 들어서는 곤란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병적으로 집착하지. 이번에도 그들은 협상을 할 걸세.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손해를 보려 하지 않을 거야.³¹⁾

이명행의 소설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영원히 하위 제국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을 남한의 현 상황으로 제시한다. 『황색 새』는 결말에서 현재 한국 상황을 구한 말 일본, 러시아, 청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던 대한제국의 상황과 겹쳐 놓으며 끝을 맺는다. 류보선은 1993년 『문학사상』에 실은 평론에서 『황색 새』를 두고 1980년대 문학이 상대했던 ‘적(敵)’과는 달리 “철저한 자본 운영원리와 주변국의 제논리라는 겹겹이 둘러쳐진 보안장치”를 지닌, “거대하고 교활한” 적, 새로운 적을 선보인 작품이라 평가한다.³²⁾

『황색 새』는 반일과 반미를 통해 전 지구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 놓인 한국의 상황을 “시사적”으로 그려냈다는 이유로 평단의 지지를 받기도 했으나,³³⁾ 이 ‘거대하고 교활한 적(세계화라는 적)’ 앞에서 한국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답하지 못하고 그저 과거의 위태로운 상황을 상기시키기만 한 셈이다. 반면 『무궁화』는 『황색 새』와 마찬가지로 반일, 반미주의 정서를 재료로 삼아 세계화 시대의 한국의 위기를 서사화하지만, 이 위기는 1인 남성 영웅과 힘(핵폭탄)에 의해 직선적으로 해결된다.

3. ‘엘리트 남성성’과 사라진 여성들

『무궁화』는 신문기자 권순범이 세계적인 물리학자 이용후 박사의 죽음에 숨겨진 이야기를 추적하는 이야기다. 이용후는 박정희의 간절한 요청에 한국으로 돌아와 핵무기를 개발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뒤이어 박

31) 『황색 새』, 400면.

32) 류보선, 「거대한 ‘적’의 발견과 소설적 움직임」,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93년 11월호, 278-279면.

33) 서영채, 앞의 글, 22면.

정희도 김재규에 의해 암살된다. 권순범은 이들의 죽음이 대한민국의 핵 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음모였음을 밝혀내고, 대통령을 찾아가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약소국의 비애에서 비롯된 것임을 역설하며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설득한다. 결국 박정희가 완수하지 못한 핵무기 개발은 남북 공동 개발로 성공하고, 소설은 한국을 또 다시 침략한 일본을 향해 핵폭탄을 날린다는 권순범의 국방부가상 시나리오를 보여주며 끝을 맺는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궁화』는 1992년 출간된 『플루토늄의 행방』³⁴⁾ (이하 『플루토늄』)을 개작한 소설이다.³⁵⁾ 무명 작가였던 김진명의 『플루토늄』은 출간 당시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1993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제목을 변경하고 개작해 출판한 후 밀리언셀러에 오른다.³⁶⁾ 『무궁화』의 흥행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유사한 서사의 소설이 개작 이후 밀리언셀러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는 원작 격인 『플루토늄』과 『무궁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주목할 점은 주인공 ‘권순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플루토늄』에서 순범은 성욕이 강한 인물로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 하는 장면이 빈번히 등장한다. 반면 『무궁화』의 순범은 성관계에 관심이 전혀 없다. 그는 여성들과 정신적인 관계를 맺을 뿐 신체적 접촉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1970년대~1980년대 대표적인 남성향 대중소설인 추리소설이 여성의 섹슈얼리

34) 김진명, 『플루토늄의 행방』, 실록출판사, 1992. 이후 이 작품에서 인용할 경우 『플루토늄』으로 표기하고 권, 면수만 병기할.

35) 『플루토늄』의 책날개와 광고를 살펴보면 『무궁화』와 마찬가지로 총 3권으로 출판할 계획이었던 듯하나 실제 출판은 『플루토늄의 행방 1. 어느 핵 물리학자의 죽음』, 『플루토늄의 행방 2. 검은 코끼리 상의 비밀』 두 권만 출판되었다.

36) 『무궁화』의 기록적인 흥행으로 당시 『무궁화』 흥행 원인으로 제목 변경, 출판사의 기획력 등을 꼽는 기사가 나기도 한다. 「제목이 판매량 좌우... 소설은 명사형 선호」, 『조선일보』, 1997년 11월 8일자 35면.; 「문화와 돈(2) 기획력 뛰어난 베스트셀러 공장」, 『동아일보』, 1996년 5월 7일자 27면.

티를 선정적, 폭력적으로 묘사하면서 남성 독자 소구력을 발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기에 주목을 요한다. 이는 곧 1990년대에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남성성이 요청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77~1978년 『일간스포츠』에 연재되고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김성종의 『제5열』은 대동아 공영권 재건을 위해 한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려는 일본 극우 조직의 음모를 다룬다.³⁷⁾ 이 소설의 주인공 최진은 한국 여성들을 속여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고, 한국에 마약을 퍼뜨리는 등 일본 조직의 파렴치한 범죄를 막아내는 영웅이다.³⁸⁾ 『제5열』은 최진이 평범한 인물에서 강인한 몸(hard body)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를 민족이나 국가의 차원으로 확대한다.³⁹⁾

반면 『무궁화』의 주인공인 권순범은 불품없고 나약한 신체를 가졌다. 소설 속에 묘사된 몇 번의 싸움에서 그는 계속 얻어맞고 다른 남성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그럼에도 소설에서 권순범의 남성성은 의심받지 않는데, 그의 남성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 육체적인 강인함이 아니라 애국심 그리고 국제 정치에 대해 지닌 선구자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무궁화』는 기존 남성향 대중 소설의 전략이었던 여성에 대한 성적인 묘사나 남성의 강인한 신체를 전시하는 대신 한국의 위기, 세계정세와 국가간 원력관계, 핵무기의 필요성,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장구하게 늘어놓는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남성들 사이의 동경

37) 『무궁화』가 제시하는 ‘일본의 신 대동아공영권 구상’과 ‘일본이 한국을 경제 식민지화 할지 모른다’는 대중적 상상력은 1970년대 이후 한국 추리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기도 했다.

38) 김성종 추리소설에 나타난 남성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안혜연, 「1970년대 후반-80년대 추리소설 속 남성성의 재건과 균열」, 『현대문학이론연구』 89,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참조.

39) 수잔 제퍼드는 1980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분석하며 레이건의 시대를 “몸의 시대”로 규정한다. 그는 몸을 “성병, 부도덕성, 불법 화학품, 계으름, 위협에 빠진 태아를 담고 있는 잘못된 몸”인 ‘소프트 바디(soft body)’와 “힘, 노동, 결단력, 충성심, 용기를 감싸고 있는 표준적인 몸 ‘하드 바디(hard body)’로 구분한다. 소프트 바디는 여성/유색의 것으로, 하드 바디는 남성과 백인의 것으로 상징된다. 하드 바디는 집단적 상상으로 기능하면서 영웅적이고, 공격적이고, 과단성 있는 국가의 몸과 연결된다. 수잔 제퍼드, 『하드 바디』, 동문선, 2002, 43-46면.

과 존경, 그들 사이의 공인과 인정이다. 『무궁화』에서 이용후는 박정희의 ‘독재’에는 반대하지만, ‘민족을 위해’ 박정희와 손을 잡고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 그는 박정희와 함께 술을 마시다 핵무기가 완성되면 하야를 약속하라며 각서를 요구하고, 박정희는 이에 흔쾌히 응한다.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소설은 “진정한 남자의 용기”와 “진정한 남자의 아량”으로 묘사한다.⁴⁰⁾

한만수는 1990년대 베스트셀러를 분석하며 “성묘사의 후퇴”를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한다. 90년대 이전 베스트셀러에서는 성묘사가 남성독자의 소구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나 1990년대 다양한 영상매체로 인해 소설의 성묘사가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⁴¹⁾ 1990년대 베스트셀러 속 남성 주인공들은 여성과의 성관계가 아닌 남성과 남성 사이의 정신적 연대를 통해 남성성을 공인받는다. 그렇다고 성묘사의 후퇴를 여성을 대상화하던 이전 대중서사의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궁화』의 여성인물들은 순범과 성관계를 갖는 대신 남성이 “여성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도록 겸손과 현명함”을 통해 남성성 형성에 이바지한다.⁴²⁾ 이 소설에서 여성의 역할은 남성들이 하고자 하는 ‘큰 일’의 숭고한 가치를 이해하며 ‘자신감’이 상하지 않도록 내조하는 것이다.

삼원각 마담 신윤미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30대 초반 여성이다. 그는 술에 취한 순범과 하룻밤을 보내지만, 다음날 순범에게 수줍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깔끔한 솜씨로 해장국을 끓여”⁴³⁾ 아침상을 대접한다. 윤미는 스스로 이용후 교통사고의 비밀을 밝히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내 순범에게 전달할 만큼 똑똑하지만,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지 않는

40) 『무궁화』 2, 264면.

41) 한만수, 앞의 논문, 194-197면

42) 『무궁화』 1, 125면.

43) 『무궁화』 1, 29면.

겸손함으로 순범을 감탄케 한다. 또 순범이 이용후 박사의 딸 이미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국가를 위해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순범 곁에서 사라진다.

순범과 부부가 된 미현 역시 윤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용후 박사에게 대해 조사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순범은 미국 하버드대 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용후의 외동딸 미현을 만난다. 미현은 처음에는 순범을 무뚝뚝하게 대하지만, 그와 헤어질 때 아버지가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신랑에게 주라며 남긴 고급 스위스 시계를 건넨다. 이후 순범과 함께 여러 사건을 겪은 미현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순범의 민족의식에 존경심을 느낀다.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 천재라던) 미현은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 순범을 조용히 내조하는 아내가 된다.

반면에 이 이상적인 여성들의 대척점에 놓인 여성들은 역사의식이 없고, 자신만을 내세우는 여성이다. 순범이 일본 출장 중에 만난 한국인 호스티스는 한국 남성들과는 달리 일본 남성들은 매너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호스티스: “우리가 여기 와서 왜놈들한테 몸 굴리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한국 남자들 때문이에요. 알고 보면 한국 여자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몽고 지배 때나 병자호란 때나 임진왜란 때나 일제 강점기 때나 우리 여자들만 온갖 몸쓸 일 다 당했잖아요.”

권순범: “꼼짝 못 하긴 왜 꼼짝 못 해. 너희 같은 한심한 애들이 나라꼴 다 망쳐놓지. 일본은 야만족인데 백제가 다 키워준 거야.”

호스티스: “피이, 맨날 문화나 전해줬다 그러기나 하고, 그까짓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번도 일본한테 이겨보지도 못하고,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한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에 와서 술집의 한국 아가씨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순범의 가슴에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었다.⁴⁴⁾

호스티스가 일본 남성들의 매너를 칭찬한 후 한국 남성들의 나약함과 근성 없음을 지적하자 순범은 대뜸 일본 민족의 야만성을 이야기 한다. 그는 고대의 문화 전파를 예로 들며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설교하지만 호스티스는 순범의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호스티스의 태도는 순범으로 하여금 현재의 국력 차이를 절감하게 한다. 이에 순범은 울분을 느끼면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무기 측면에서 일본을 압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장면은 상상적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혹은 일본에 의해 훼손된 남성성을 회복하는 것이 1990년대 초반 대중 서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음을 상기시킨다. 이것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그동안의 열세를 단숨에 만회하는 과격하면서도 성급한 형태로 표현되었고 그것이 대중들의 열광적 반응을 이끌어낸 것 역시 주목할 점이다.

김진명 소설 속 남성들은 여성들과의 성관계에는 무관심하며 오로지 민족의 역사와 미래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근대 사회에서 성별분업과 함께 민족주의와 민족이 공적인 정치 영역으로 할당되면서 민족은 언제나 남성으로 표상되고, 여성은 타자나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매개체로 여겨졌다.⁴⁵⁾ 『무궁화』의 순범은 역사, 정치, 민족과 같은 무형의 공적 영역을 남성의 영역으로 각인시키며, 신체적 강인함이 아닌 정신적 영역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엘리트 남성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남성들의 태도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서 벗어난 듯 보이지만 여성을 성별분업 속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남성의 보조자로 기능하게 만든다.

이렇듯 1990년대 초반 『황색 새』, 『무궁화』 등 역사와 국제 정치를 다루는 소설에는 여성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나 남성들의 액세서리로만 등장한다.⁴⁶⁾ 이는 민족은 언제나 남성으로 표상되어 왔으며, 정치 역시 남성만의

44) 『무궁화』 3, 39-40면, 강조는 인용자.

45) 나라 유발-데이비스, 박혜란 옮김, 『젠더와 민족』, 그린비, 2012, 17쪽.

46) 『무궁화』에서 여성인물은 역사의식과 정치에 대한 감각대신 민족을 대표하는 남성을 내조하

영역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문학사에서 1990년대 초반은 여성문학의 전성기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영화에서도 직장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다루며, 여성이 문학을 비롯 다양한 대중서사에서 중심으로 그려지던 시기이다.⁴⁷⁾ 그러나 여성중심 서사의 유행 이면에는 『무궁화』 같이 여성을 배제한 민족 서사가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 서사가 IMF 이후 여성이 없는 남성들만의 대중서사가 유행하는 데 영향을 주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4. 박정희의 유령과 음모론의 시대

『무궁화』의 작가의 말에서 김진명은 소설을 쓰게 된 동기로 이휘소라는 과학자와 박정희 암살과 관련된 “어떤 비밀에 대한 확신”을 언급한다. 김진명이 제기한 이 음모론은 개인의 확신에 불과할 뿐 사실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음모론은 당시 대중지에 실린 정치적 가십 기사들과 맞물리면서 근거 아닌 근거를 획득하고 대중 사이에 널리 퍼지기 시작한다.⁴⁸⁾ 가령, 무궁화가 출간되어 인기를 끈 1993년 중반, 보수 잡지의 대표

는 역할만 부여 받는다. 김진명의 이러한 여성관은 두 번째 소설 『가즈오의 나라』(해냄, 1995)에서도 반복된다. 『가즈오의 나라』의 주인공은 도쿄대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상훈이다. 상훈은 하코네 미술관에 보관된 한국 그림을 보러 갔다 미술사를 전공한 일본 여성 하야코를 만난다. 상훈은 요즘 한국 여자와 달리 “수그릴 줄 아는 동양 문화의 맥”을 가진 하야코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리고 하야코는 식민지 시기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지적하며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상훈의 태도에 존경심을 갖게 된다.

47) 이 시기 여성문학의 전개와 관련해서는 한경희, 「비극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조건: 1990년대 여성문학의 제도 문학 편입 맥락과 그 과정」, 『현대소설연구』 83, 현대소설학회, 2021;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24(2), 대중서사학회, 2018 등 참조, 1990년대 이후 한국영화에서 여성인물이 유의미한 역할을 잃어갔다는 점과 남성 중심의 ‘브로맨스’ 서사의 유행과 관련해서는 손희정, 「춧불혁명의 브로맨스: 2010년대 한국의 내셔널 시네마와 정치적 상상력」, 『민족문학사 연구』 68,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참조.

격인 『월간 조선』에는 「집중연재 -박정희 육성증언, 선우련 공보 비서관, 8년간의 육성 비망록 여섯 권, 역사적인 대공개」이라는 기사가 연재된다. 박정희 공보 비서관이었던 선우련은 이 기사에서 박정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고 회고한다.

박정희: 1년 전반기에 핵폭탄이 완성된다고 국방과학연구 소장한테 보고 받았어. 핵폭탄이 생기면 김일성어도 감히 남침을 못할 것 아닌가. 북괴가 남침하더라도 우리가 핵을 던지면 북한도 날아갈 것 아닌가. 쳐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용이야. 81년까지 완성이 되면 그해 국군의 날 여의도 행사를 부활시켜서 무기 사열할 때 원자탄을 세계에 공개하겠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퇴 성명을 내고 물러나는 거야.”⁴⁹⁾

선우련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암살로 인해 중지되었다고 이야기하며, 10.26 사건 이후 전두환에게 핵무기 개발 사실을 전했다나 전두환은 “그것을 알면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원도 안 해줄 걸요”라며 별로 달갑지 않게 반응했다고 쓰고 있다.⁵⁰⁾

전상진에 따르면, 음모론은 사람들의 고통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죄

48) 이 음모론은 최근까지도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음모론의 진위를 가리는 방송인 SBS 〈당신이 혹하는 사이〉 시즌3에서 이회소 박사의 죽음과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음모론을 다뤘다. 2022년 3월 16일 방영된 〈이회소 사망의 진실〉 편에서는 소설에 등장하는 박정희의 삼고초려 하는 편지가 실제 박정희가 작성한 것이라거나 이회소 박사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미국의 감시를 피해 북송아 빼에 핵무기 설계도를 숨겨왔다는 음모론이 모두 허구임을 밝혔다. 특히 이회소의 유족들은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음에도 소설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박정희에게 협력하는 것으로 그려지자 출판금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49) 「집중연재 -박정희 육성증언 上」, 『월간조선』, 조선일보사, 1993년 3월호, 135면.

50) 「집중연재 -박정희 육성증언 上」, 『월간조선』, 조선일보사, 1993년 3월호, 136면.

인과 책임자를 색출하여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를 설명해줌으로써 사람들이 고통 받는 이유의 원인을 알려주기 때문이다.⁵¹⁾ 1990년대 음모론은 대중소설뿐만 아니라 영상 매체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한다. 범죄 인포테인먼트의 시조격인 〈그것이 알고 싶다〉가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했으며, 1994년에는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는 카피로 유명한 음모론을 다루는 외화 〈X-파일〉이 방영을 시작한다.

음모론을 다룬 서사들은 결코 한 가지 단일한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해 특정한 적(배후)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세상의 일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추리소설의 형식을 취한다. 김진명의 『무궁화』나 동시기 베스트셀러인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은 당시 ‘추리소설’, ‘추리소설적 구성’, ‘추리소설적 기법’을 사용한 소설로 소개되었고,⁵²⁾ 대중문학에서만 아니라 본격문학에서도 ‘추리소설적 기법’을 사용한 소설은 하나의 경향을 이룰 정도로 다수 발표된다.⁵³⁾ 탐정이 범죄의 과정을 조사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범인을 처벌하는 추리소설은 세

51) 전상진, 『음모론의 시대』, 문학과지성사, 2014, 23-32면; 칼 포퍼, 이한구 옮김, 『추측과 논박』 1, 민음사, 2001, 247-251면, 참조.

52) 1990년대 초중반 한국추리소설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었다. 1992년 한 해에만 200여권이 출판되고 존 그리섬, 시드니 쉐던과 같이 유명 해외 작가의 최신 작품이 출간되고 의학 스릴러, 법정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의 추리소설이 소개된다. 박광규, 「상승과 추락: 1990년대의 한국 추리문학계 이모저모」, 『미스터리』 42, 엘릭시르, 2022, 31-44면 참조.

53) 이러한 현상은 문예지 『오늘의 소설』에서 「최근 소설 문법의 변모와 그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기획은 〈지상토론〉이라는 특집으로 도정일, 최윤, 이남호, 정과리, 신경숙, 윤영수에게 최근 신세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다섯 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특집의 첫 번째 질문은 “최근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장편 소설들은 추리소설의 기법이나 SF 소설의 기법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중소설의 기법이나 대중문화의 형식들이 본격소설에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현상의 의미와 한계”에 관한 것이었다. 이남호, 도정일, 신경숙, 최윤, 윤영수, 정과리, 「최근 소설 문법의 변모와 그 의미」, 『오늘의 소설』 12호, 현암사, 1993, 4-44면.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추리기법 민족주의 화두, 90년대 소설의 주류 형성」, 『경향신문』, 1993년 11월 9일 15면.; 이영준, 「본격 추리소설의 가능성」, 『월간 문화예술』 170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계를 적과 아, 선과 악, 나와 타자로 나누면서 이분법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음모론적 세계관과 맞닿는 면이 있다. 적의 섬멸(체포와 처벌)은 나의 세계를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역할을 하며, 나(우리 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타자(적)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1990년대 음모론을 토대로 한 추리소설 형식의 유행은 1980년대 문학이 도덕적 열정과 낙관적인 미래를 제시하며 계급적 토대 위에서 설정한 ‘적’과 ‘아’의 기준이 무너지고, 새로운 적과 아, 선과 악의 경계가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⁵⁴⁾

『무궁화』는 1990년대의 달라진 세계정세 속에서 “이념에 의해 적과 동지를 나누던 낭만적인 시대는 모두 끝나고, 오직 국가의 이익에 의해서만 이합집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⁵⁵⁾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궁화』에서 적은 민족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표상된다. 1980년대 문학이 계급적 도덕성에 기초하여 민족 내부의 속물들을 ‘적’으로 추려내 비판했다면 1990년대의 ‘적’은 민족=국가 바깥에 위치한 국가들로 바뀌었다. 1990년대 초반의 베스트셀러들은 경제 논리, 힘의 논리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인식을 선보였고, 이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를 소환했다. 계급 해방과 통일을 꿈꾸며 미래를 상상하고 예측하던 1980년대와는 달리, 세계화, 개방화라는 기치 아래 세계의 강대국과 나란히 경쟁해야만 하는 1990년대는 미래를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한 것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은 과거로 시선을 돌리며 강한 영웅, 강한 지도자로서 박정희라는 유령을 소환한다.

『무궁화』 음모론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지점은 ‘핵’과 박정희를 연결시

54) 이정민, 「2부 추리소설: 3. 탐정은 왜 귀족적인 백인 남성인가」, 『범조소설의 계보학』, 소나무, 2018, 참조.

55) 『무궁화』 1, 254-255면.

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명은 『무궁화』 서문에서 1991년 12월 노태우와 북한 김일성이 함께 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두고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비핵화 선언’이 강대국의 강권에 의해 발표된 것이라며, “절망”과 “분노를 넘어서 차라리 침묵해야만 했다”고 쓰고 있다.⁵⁶⁾ 소설 속에서 이용후가 죽음을 당하고 박정희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국이 “약소 민족”이기 때문이었다는 논리와 상통하는 지점이다.

『무궁화』는 세계화, 국가 이익이라는 논리 아래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긍정하고 개발독재를 정당화하고 있다. 박정희가 내세운 ‘한국적 민족(민주)주의’는 ‘민족중흥’을 정권의 목표로 삼아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 그럼에도 박정희 독재의 그림자는 ‘한국적 민족(민주)주의’를 민족자존과 연결지으며 1990년대 끊임없이 재소환된다.⁵⁷⁾ 소설에서 강조되는 민족과 국가의 위기상황은 국가 경쟁력, 즉 ‘힘’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힘’의 물질화된 형태인 핵보유의 필요성으로 제기한다. 남북 합작으로 핵무기가 완성되자 순범은 “이제 우리도 핵주권 시대를 살게 된 거냐며 기뻐한다.⁵⁸⁾ 또한 순범이 만난 인도의 물리학자는 핵무기를 갖기 전 모든 국가들이 인도를 “거지” 취급했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자 자신들을 깔보지 않는다며 일차원적인 힘의 논리를 역설한다. 소설에서 핵무기는 국가의 자존을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며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경쟁 논리를 정당화한다. 결국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박정희 신드롬’⁵⁹⁾은 199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경제지상주의적 논리를

56) 「작가의 말」, 『무궁화』 1, 7면.

57) 박정희는 1990년대 일반 시민, 대학생, 정치, 행정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정치를 가장 잘한 대통령’, ‘복제하고 싶은 인간’, ‘업적이 뛰어난 대통령’으로 압도적인 차이로 1위에 오른다. 「정치학자 대통령 자질 설문조사」, 『한겨레』, 1992년 4월 16일, 13면; 「업적 인기 박 전대통령 으뜸」, 『경향신문』, 1994년 8월 16일, 7면; 「정부수립 50주년, 대한민국 50년의 50대 인물 선정, 박정희 전 대통령 1위」, 『조선일보』, 1998년 7월 15일, 1면.

58) 『무궁화』 3, 77쪽.

체화해가고 있었던 대중의 상상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5.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등장과 그 이후

이 글은 김진명의 『무궁화』(1993)를 중심으로 1990년대 새롭게 등장한 민족주의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특히 김영삼 정권이 세계화를 국가간 '무한경쟁'으로 정의한 이래 세계화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이 『무궁화』에서 강한 권력의 의지인 '핵'으로 표상되고, 이러한 태도가 박정희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또한 이 시기 등장한 '엘리트 남성성'은 역사, 정치, 민족을 남성의 영역으로 위치 짓고,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을 밝혔다.

『무궁화』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밀리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통속적인 민족주의 소설로 치부되며 학술적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그러나 『무궁화』는 민족주의가 진보의 담론에서 보수의 담론으로 치환되고, 세계화와 '무한경쟁'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민족주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면밀히 살펴야 할 텍스트이다. IMF 이후 재등장한 '박정희 신드롬', 『환단고기』 류의 고대사에 대한 왜곡된 민족주의의 유행은 『무궁화』와 함께 논의해야 그 면모를 온전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무궁화』를 주 분석대상으로 삼은 첫 논문이기에 한계 역시 분명하다.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내용들을 언급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무궁화』에서 핵무기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한민족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자 남북한 통일의 핵심적 매개물이기도 하다. 북한을 적국이 아닌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김일성과 한국의 대통령이 서로 안부를 물으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상황은 급진적인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

59) 1997년 IMF 경제위기와 함께 조각제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가 인기를 끌며 '박정희 신드롬'이 일어난다.

김진명은 한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은 운신을 전혀 못하는 병자”와 같다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북한을 안심시키고 끌어안는” “세련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⁶⁰⁾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일차적으로는 냉전체제가 와해된 이후 북한이 더 이상 체제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가난하고 도와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데 있다. 탈냉전이라는 세계적 흐름은 유일한 공산국가인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켰고, 1993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은 북한에 대한 한국 대중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1990년대 중반 진행된 종교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북한의 식량 지원 사업은 ‘불우이웃 북한 도와주기’를 슬로건으로 삼았는데, 이에 대해 “통일되면 거지 떼가 몰려 올까봐 싫어요!”라고 응답하는 정서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시작한다.⁶¹⁾ 이러한 대중들의 대북 인식은 북한을 더 이상 체제의 경쟁자가 아니라 구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남한의 경제가 북한을 앞지르고, 냉전 해체와 함께 남한이 한반도 대표성 정치의 승리가 된 1990년대 초반의 민족주의는 기존 한국의 민족주의를 설명해온 혈통적 민족주의나 종족적 민족주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 민족이라는 당위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이 우선시 되며, 그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을 적으로 만든다.

강원국은 2000대 후반 혈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민족주의, 즉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출현했다고 논한다.⁶²⁾ ‘대한민국 민족주의’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변화, 성장과 더불어

60) 『핵 공동개발 민족 이익 강조한 것,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자 김진명씨』, 『한겨레』, 1994년 6월 7일, 13면; 『핵폭탄 보유한 국가의 힘을 상징, 핵소셜 베스트셀러작가 김진명씨』, 『경향신문』, 1994년 3월 28일, 9면.

61) 박영자, 「동아시아 정세 분석: 2009 북한 정세와 남북관계」, 『동아시아 브리프』 2009 4(1),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2009, 50면.

62) 강원국,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재)동아시아연구원, 2007, 15-37면.

북한 체제의 쇠퇴와 정당성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결과로서 남한 중심의 국가 정체성 의식을 일컫는다.”⁶³⁾ 즉 “민족정체성의 최우선 요건으로 대한민국 국민/국적을 꼽으며 혈연공동체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소속감을 중시, 남북을 별개 국가로 인식하고 통일을 원치 않거나 남한 주도하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유지하는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다.⁶⁴⁾

1990년대 초반 대중들이 『무궁화』에 보인 열광적인 반응은 민족주의가 보수의 담론으로 자리잡고, 혈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새로운 민족의 경계가 될 것임을 예지하고 있다. 이는 IMF 이후 파편화되어 버린 곧 도래할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 국적이 새로운 민족의 경계가 될 것임을 예지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무궁화』에 외부의 적으로 등장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 이 소설에서 이용후와 박정희를 죽이고, 대한민국의 핵개발을 저지한 거대한 세력은 미국이다. 그러나 소설은 (비록 가상 시나리오이긴 하나) 미국이 아닌 일본에 핵폭탄을 날리면서 끝을 맺는다. 이러한 반미, 반일 감정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주목할 점은 미국의 위협은 관련자를 직접 살해하거나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등 실질적 위협으로 나타나는 반면 일본은 언제나 정신적인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묘사된다는 사실이다. 『무궁화』에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며 신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는 등 정신적으로 한국인들을 지배하려 한다. 이러한 일본의 정신적 위협은 해방 이후 일본 문화가 유행하거나 일본의 역사왜곡이 있을 때마다 반일 감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본문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위의 논의들은 추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63) 천정환, 「3.1운동 100주년의 대중정치와 한국 민족주의의 현재」, 『역사비평』 130, 역사비평사, 2020, 12면.

64) 이용기, 「임정법통론의 신성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역사비평』 128, 역사비평사, 2019, 341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진명, 『플루토늄의 행방』 1, 2, 실록출판사, 1992.
 _____,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 2, 3, 해냄, 1993.
 _____, 『가즈오의 나라』 1, 2, 해냄, 1995.
 이명행, 『황색 새의 발톱』, 문학과지성사, 1993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 창비, 1993.
 전여옥, 『일본은 없다』, 지식공작소, 1994.
 『김영삼 대통령 연설 문집 제1권』, 대통령비서실, 1994.
 『김영삼 대통령 연설 문집 제2권』, 대통령비서실, 1995.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월간조선』

2. 논저

- 강원국,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재)동아시아연구원, 2007, 15-38면.
 김경은, 「민중화 이후 핵심행정부의 의사결정: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사례 분석」, 『행정논총』 56(4),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8, 93-124면.
 김동춘, 「국제화와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비평』 29, 역사비평사, 1994, 40-54면.
 _____, 「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시민과 세계』 창간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2, 68-90면.
 김백영, 「상징공간의 변용과 집합기억의 발명: 서울의 식민지 경험과 민족적 장소성의 재구성」, 『공간과 사회』 28, 한국공간환경학회, 2007, 188-221면.
 계정민, 『범조소설의 계보학』, 소나무, 2018,
 류보선, 「거대한 '작'의 발견과 소설적 움직임」,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93년 11월호, 272-287면.
 박광규, 「상승과 추락: 1990년대의 한국 추리문학계 이모저모」, 『미스테리아』 42, 엘릭시르, 2022, 31-53면.
 박영자, 「동아시아 정세 분석: 2009 북한 정세와 남북관계」, 『동아시아 브리프』 2009 4(1),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2009, 40-46면.
 박윤희, 장석준,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과정의 상징정치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

- 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6(3),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7, 135-172면.
- 박해남, 「1990년대의 국제화, 세계화와 대중 민족주의」,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469-513면.
-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24(2), 대중서사학회, 2018, 9-40면.
- 서영채, 『음모, 장편소설의 새로운 화두』, 『상상』, 살림출판사, 1993년 겨울호, 12-24면.
- 손희정, 「촛불혁명의 브로맨스: 2010년대 한국의 내셔널 시네마와 정치적 상상력」, 『민족문학사 연구』 68,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521-548면.
- 신기욱, 이진욱, 율김,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창비, 2009.
- 안혜연, 「1970년대 후반~80년대 추리소설 속 남성성의 재건과 균열」, 『현대문학이론연구』 89,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55-82쪽.
- 양혜우, 「이주노동 없는 공동체를 위한 귀환 이주노동자의 꿈: 네팔 다목적 협동조합 에커타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77, 민족연구소, 2021, 147-175면.
- 윤여일, 「탈냉전기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이남호, 도정일, 신경숙, 최윤, 윤영수, 정과리, 「최근 소설 문법의 변모와 그 의미」, 『오늘의 소설』 12호, 현암사, 1993.
- 이영준, 「본격 추리소설의 가능성」, 『월간 문화예술』 170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3.
- 이용기, 「임정법통론의 신성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역사비평』 128, 역사비평사, 2019, 326-352면.
- 임우경, 「비판적 지역주의로서의 한국 동아시아론의 형성」, 『동아시아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6, 164-217면.
- 전상진, 『음모론의 시대』, 문학과지성사, 2014.
- 정무용, 「역사전쟁의 序」, 『중앙사론』 54(1),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21, 223-250면.
- 조성환, 「세계화 시대의 동아시아 민족주의 : 신민족주의의 분출과 동아시아주의적 모색」,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5(1),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2006, 165-187면.
- 진중권, 『네 무덤에 침을 뱉어』 2, 개마고원, 1998.
- 천정환, 「3.1운동 100주년의 대중정치와 한국 민족주의의 현재」, 『역사비평』 130, 역사비평사, 2020, 8-51면.
- 하정일, 「과시즘의 신화, 단선적 근대관의 역설: 긴급진단 2. 시대착오적 국가지상주의

- 자, 이인화], 『실천문학』 47, 실천문학사, 1997, 65-77면.
- 한경희, 「비극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조건: 1990년대 여성문학의 제도 문학 편입 맥락과 그 과정」, 『현대소설연구』 83, 현대소설학회, 2021, 39-85면.
- 한만수, 「90년대 베스트셀러 소설, 그 세계관과 오락성: 『소설 동의보감』, 『천년의 사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원한 제국』,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189-211면.
- 황종연, 「민족을 상상하는 문학—한국소설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학동네』 1(1), 문학동네, 1994, 1-20면.
- 나라 유발-데이비스, 박혜란 옮김, 『젠더와 민족』, 그린비, 2012.
- 수잔 제퍼드, 『하드 바디』, 동문선, 2002.
- 칼 포퍼, 이한구 옮김, 『추측과 논박』 1, 민음사, 2001.

<Abstract>

Conspiracy theories and nationalism in
1990s Korean bestsellers
– focusing on Kim Jin-myung's novel
The Mugunghwa Bloomed(1993)

An, Heayun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nationalist discourse in 1990s bestsellers, with a specific focus on Kim Jin-myung's *The Mugunghwa Bloomed*(1993). This novel achieved significant success as a million-seller in the 1990s, largely due to its strong anti-Japanese and anti-American sentiments. However, it has often been dismissed as a conventional nationalist novel and has received limited scholarly attention. Nevertheless, *The Mugunghwa Bloomed*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as a text that illustrates the shift in national discourse from progress to conservatism amidst the global changes brought about by globalization.

Drawing on the premise that globalization and nationalism are intricately connected,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Kim Young-sam's policies of "correcting history." Additionally, it examines the perception of globalization in Lee Myung-haeng's *The Yellow Bird's Claw*(1993), which explores themes similar to *The Mugunghwa Bloomed*. The latter novel provides a realistic depiction of South Korea's predicament as a sub-empire sandwich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post-Cold War era.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a hero who resolves this situation, it fails to garner

widespread support.

The paper delves into how Kim's novels present 'elite masculinity' as the new ideal masculinity, portraying politics and the nation as masculine constructs, and featuring a solitary male hero. Furthermore, it explores how the Kim regime defines globalization as an 'endless competition' between nations, and how *The Mugunghwa Bloomed* represents the nationalist response to globalization as a strong will to power, symbolized by the 'nucleus,' thereby legitimizing Park Chung-hee's dictatorship. Notably, the article argues that the novel hints at the emergence of 'Korean nationalism' through its inclination to move away from blood nationalism and envision unification for the benefit and future of Korea.

Key words: Kim Jin-myung, *The Mugunghwa Bloomed*, Lee Myung-haeng, conspiracy theory, Korean nationalism, anti-Japanese, anti-American, Park Jung-hee Syndrome

투 고 일: 2023년 5월 22일

심 사 일: 2023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6월 21일